



가래떡 만드는 이회창 전 총재 무소속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11일 서울 낙원동 우리 떡집에서 가래떡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 昌 지방공약 시동... 첫 행선지 충청 30%대 지지율 '바람몰이'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11일 농민의 날을 맞아 가래떡 만들기 체험을 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상대'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한나라당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없다"면서도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함께 갈 수 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흐트러지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출마 선언에서도 "나는 한나라당과 이 후보와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나라가 잘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관계로 가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12일 남대문 단압빌딩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국을 6~7개 권역으로 나눠 9일간 출마 선언 이후 첫 지방

순회 일정에 오른다. 우선 첫 방문지로는 이 후보의 연고지인 대전·충남 지역을 택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는 이 지역에서 출마 선언 후 20% 초반에 머물고 있는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30%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바람몰이'에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충청권에서 하루를 묵은 뒤 이튿날인 13일 곧바로 대구·경북(TK)으로 향할 예정이다. 특히 TK 지역은 지난 7일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가 지지율 37.4%를 기록, 이명박 후보(32.6%)를 눌러 보수층 표심 변화의 바로미터라 불릴 만한 곳이다. 이어 이 후보는 부산·경남과 광주·전남, 전주·전북, 강원을 거쳐 다시 서울·경기로 입성, 전국을 '8자' 모양으로 그리며 바닥 민심을 훑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朴 경선캠프 인사들 昌쪽으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를 도왔던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한 이회창 후보의 쪽으로 하나 둘 합류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7일 출마 선언 당시 "경선에 승복하고 당 화합을 꾀하는 안된다"는 입장을 이해한다. 다만 어느 날엔가 서로가 뜻이 통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해 박 전 대표에게 사실상 구애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박 전 대표측 실무진

의 이동이 양측간 연대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 캠프 외곽에서 언론 자문역을 맡았던 이영덕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영관 전 세계일보 차장은 최근 이 후보 캠프에 합류해 공보팀장과 대변인 행정실장을 맡았다. 외곽조직인 이른바 '마포팀' 멤버였던 이들의 이동을 계기로 박 전 대표측 캠프 상당수 실무진들이 합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 철도·화물연대 16일 공동파업

# 하루 12만 t 화물운송 차질

### 철도 승객 265만명 발뚱여... 정부 '불법 파업' 엄중 대처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16일 공동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교통 및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철도와 도로가 한꺼번에 멈춰서게 돼 교통과 물류 수송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도·화물연대 파업 왜 선언했나>=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그동안 개별 투쟁을 통해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무원리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월부터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오다 지난달 29~31일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53%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한국철도공사 특별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자로 철도공사 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재정 회부를 결정했지만 철도노조측은 불신감

을 드러내며 파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 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본부는 건교부를 상대로 그동안 3차례의 교섭을 통해 유류세, 도로비 등 직접비용 인하 등을 통한 생존권 보장,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등을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빚어왔다. <공동 파업의 피해 규모는>=철도는 철도노조의 쟁의 행위시 고속 및 일반 철도의 운행 중단으로 하루 평균 265만 명의 승객과 12만 t의 화물 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천안 노선 등 수도권 전철의 경우 노조 파업으로 수송율이 50%대까지 떨어지며 열차의 경우도 20%대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1일 평균 136회를 운행하는 KTX는 파업시 50회로 수송률이 36.8%로 낮아지며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평시 476회에서 파업시 91회로 19.6%까지 줄어든다. 특히 대체 인력을 여객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철도 화물 운송은 사실상 거의 멈추게 된다.

한편 국내 화물차는 총 35만여대인 반면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는 1만2천 여대에 불과해 화물 운송 거부로 화물 자동차를 이용한 물류 운송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지난해 파업처럼 다른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할 경우 운송 통로 자체가 막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 파업 형식이라 피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게 현실이다. <공동 파업에 따른 정부 대책은>=정부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법무부, 건교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이 모여 합동 대책 회의를 통해 불법 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고 대체 수송편을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전락 물자 등은 파업 발생 전에 미리 수송하라고 각 기업에 요청했으며 경찰청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운송 방해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 현장과 시각 ■

### 서남권개발, 政爭 대상 아니다



박치경  
정치부 차장

무안국제공항이 문을 열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이 열렸던 지난 8일은 화창했다. 서남권 속원사업인 무안공항 개항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혁신도시 공사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을 날씨도 축하하는 듯 했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역사적인' 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걸음도 경쾌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무안공항 개항식에서 "무안·목포·신안권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지역민들을 설레게 했다. 노 대통령이 "서남권 개발은 환경해권에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는 가치있는 투자"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자 행사에 참석한 1천여 명은 박수로 화답했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린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노 대통령은 "중국의 등장에 따른 서해안시대라는 변화와 더불어 호남의 소외도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 앞으로 호남시대가 온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특유의 직접 화법은 자제했지만 노 대통령의 말에서는 임기를 다 할 때까지 16대 대선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던 호남에 대한 '빛'을 갖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쪽 상황은 정반대였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남권 특별법과 F1특별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와 지역민들은 당혹해 했다.

이튿날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전날 노 대통령의 행보를 혹평했다. 강성만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시대가 온다고 립서비스를 시원하게(?) 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강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소외된 호남을 위해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호남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 F1특별법도 한나라당이 발의했고 호남의 예산을 매년 한 푼도 깎지 않고 더 증액해 내려보낸 것도 한나라당이었다"고 목적을 높였다.

노 대통령의 서남권 지원 표명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난은 '정치적'으로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부의 서남권 지원의지를 폄하하기보다는 서남권특별법이나, 특히 자신들이 발의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F1특별법 통과에 앞장선다면 주민들의 시선은 반전될 것이 틀림없다.

지역현안을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이 외치고 싶은 말은 "서남권 개발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낙후 달피를 위한 적절한 몸부림이다"라는 것이다.

/unipark@kwangju.co.kr

## 정동영 후보 광주·전남 선대위 구성 마무리

### 전남 선대위원장 주승용·우윤근 추가 선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지역 선 거대책위원회 진용 짜기를 완료했다. 신당 중앙선대위는 11일 전남도당 선대 위원장에 이미 임명된 신중식·채일병 의원 외에 주승용, 우윤근 의원을 추가로 선임하고, 광주·전남 20개 지역구를 비롯 전국 243개 지역구에서 선대위원장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선에서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원외인사들은 부위원장에 기용됐으며, 현역이 없는 곳은 복수의 공동위원장을 찾았다. 위원장의 경우 광주 동구는 상임위원장에 양영일 의원, 위원장에 김중배 시장 부 위원장이 임명됐다. 전남지역은 목포시의 경우 정영식 전 행정부 차관 등 3명이 상임위원장을, 순천시는 서갑원·장복식 의원이, 나주·화순은 배기운 전 의원이 맡았다. 부위원장은 광주지역의 경우 서구 갑에 송갑석 전 전대협 4기 의장 등 5명이, 서구

은 서대석 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과 박영수 전 광주시의원, 신현구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 5명이 임명됐다. 남구는 이만영 전 청와대 비서관, 이해명 전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등 9명, 북구 갑은 조기선 변호사 등 6명, 북구 을은 김재근 전 북구청장과 송태중 전 시의원 등 8명, 광산구는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등 6명이 맡았다. 전남지역 부위원장 중에는 담양·장성·곡성의 최형식 전 담양군수, 고현석 전 곡성군수 등이 눈에 띈다. 이번 인선에서는 정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중인 부대변인이나 경선때 다른 선 거캠프에서 공보역할을 맡았던 인사들도 상당수 기용됐다. 정 후보측 김영근 선대 위 수석부대변인은 장흥·영암군 부위원장에 임명됐으며, 배중호 전 순화규 후보 측 대변인은 목포시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노 대통령 "이번 대선, 역사 진보 계기 못될 것"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이번 대선에서 우리 미래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논쟁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라져 버렸다"며 "이번 대선이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는 진보의 계기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방영된 '대통령, 참여정부를 말한다'는 제목의 특집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선때 우리나라에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대결주의 정치문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타협적 정치 문화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겠다는지 이런 논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